朝鮮日報
朝刊
本紙朝夕刊十二面
發行兼編輯人 方應謨 印刷人 …
發行所 朝鮮日報社

社說 張鼓峰事件의回顧

一

今日은 張鼓峰事件의 一周年되는 날이다。回顧하건대 昨年七月十一日 琿春南方 張鼓峰附近에 約四十名의 蘇聯兵이 不法越境하여 計畫的軍事作業을開始하였다。이 地方은 滿洲國이므로 帝國政府는 日滿協約에 依하여 共同防衛에 當할 責務가 잇스므로 西駐蘇代理大使에 對하여 蘇聯兵의 至急撤退를 嚴重要求하였다。그런데 蘇聯은 도리어 現地는 蘇聯領이라고 主張할뿐아니라、다시 頗秋로부터 騎砲兵을 增派하고 이어서 重戰車 裝甲車隊를 派遣하는一方에 突然 松島伍長을 射殺하고 現地에서 軍使를 抑留하여 飛行機로 滿鮮領內를 偵察하며 慶興軍備를 增强하여 갈수록 그 挑戰的 態度를 露骨化하였다。

二

이에 對하여 重光大使는 리트비노프 外務人民委員에게 數次撤退要求를 하엿스나 조금도 誠意를 보이지안코 도리어 逆襲的態度로 頑强拒絕하엿슬뿐만아니라 蘇兵은 다시 沙草峰으로 侵入을 敢行하엿다 그동안 約二十日間을 두고 隱忍自重하던 我軍은 不得已 이를 擊攘하게되엇다。그러나 紛糾의 擴大를 避하고 잇섯는데 蘇軍은 執拗하게도 다시 攻擊하여 왓스므로 我軍은 드디어 三十一日 午前中에 張鼓峰과 沙草峰의 敵을 一擊之下에 驅逐하여 버리고 이를 完全히 占領하엿던것이다。蘇軍은 다시 飛行隊로 朝鮮內에 잇는 鐵道를 爆擊하여 停車場과 橋梁을 破壞하는等 不法行爲를 敢行하엿다 그러나 我軍은 第一線에 陣營을 치고 隱忍自重으로 待機의 姿勢를取하고 잇섯던것이다。

三

蘇聯兵은 連日 逆襲을試하엿스나 그때마다 我軍에게 擊破되고말엇다。

八月三日頃에 이르매 前面의 敵軍은 後退를開始하엿고 四日에는 堀內外務次官이 스메타닌代理大使를 招致하고 雙方이 戰鬪行爲停止에 關하여 提議한 事實을 至急本國政府에 傳達하여 그回答을 밧도록要求하엿고 他一方 重光大使는 리트비노프를 訪問하고 本件의外交交涉을 始作하엿다。그러나 連日 蘇軍은 砲擊을停止치아니하엿고 我軍도 機先을 制하여 그逆襲의 計畫을 挫折케하는等 雙方이 對時狀態를 繼續하엿다。十一日에 至하여 蘇聯側은 重光、리트비노프第三次會談에서 我方의 提出案에對하여 接近하게되고 停戰에 關한 具體案 即十一日正午를期하여 雙方이 戰鬪行爲를 停止할것、日蘇兩軍은 十一日午前零時의 現在線을 維持할것 의 두條件下에 停戰協定이 成立되엇다。

四

追後로 數日間 交涉을 經하여 張鼓峰事件은 完全히 妥結을 보앗는데 저동안 我忠勇無比한 將兵의 犧牲과 苦鬪는 實로 筆舌로 形言키 어려운바가 잇섯것이다。今年의 今日을 當하여 忠勇한 將兵의 英靈을 弔慰하고 更히 將來에 對한 覺悟와 決心을 굿게하는것은 國民으로서 意義가 가장 重大한바가잇다。大槪 東亞一角에 赤色의旗幟이 날리지 못하게하는것은 我防共國是의 明示한바로서 이國是의 實現은 目睫間에 올것이다。張鼓峰事件을 記念하여 犧牲을 엇는것을 覺悟하여야 할 잇는 未來事로 警備하는것이 곳 回顧하는것은 이點에 그意義가 잇는것이다。

蔣의壓迫에서脫出 和平反共에贊成하자

汪氏라디오로和平救國信念吐露

【廣東九日發同盟】汪精衛는 九日午後九時(日本時間午後十時)廣東으로부터「如何히하여 和平을實現할까」라는 題目미테 約三十六分間 廣東語로 라디오放送을行하여 熱烈한 和平救國의信念을 吐露하여 多大한 感銘을주엇다 演說要旨는 如左하다

同胞 諸君 余는 이제廣東에서라디오를 通하여 諸君과 相對하고잇다 親히 諸君을보지못하여도 精神은 벌써諸君과함께잇고또이제까지諸君과가튼 場所에잇스므로 心中에말할수업는 感淚와 昂奮을느낀다 余는 去 七月九日『余의 中日關係에對한 根本觀念과 前途目標』라고題한 放送을 試하엿는데當時 放送의地點을 明白히하지안햇기때문에 抗日言論家들은余가 被占領地域에잇서 自由를 일허버린것임에 틀림업다고 말하엿다 따라서 諸君에 告한다 余는 昨年十二月二十九日 和平에對한 建議를 發表한후 一步도 河內를 떠나지안코 오직 蔣介石이 國家民族을위하여 余의 建議를 容納하기를 希望하엿다 그러데 數個月을 기다려도 이希望은全혀 徒勞에엇다 그러나 國家民族을 救함은 一日도 忽忽히 할수업스므로 玆에 비로소和平을 위하여 奔走하기를 開始하엿다 이에 奔走함에잇서서 그行先을 一一이 報衣社에 通告할義務가 업스므로 自然 그行動은 秘密로될것이다 이는 그때에만 限한것이아니다 今後도 必要에應하여秘密行動을 取할지모른다

前線 後方에잇는 民衆은 如何한 생각을가지고잇슬까? 萬若 和平의希望이업스면모두가치죽는것뿐이니 더말할必要가업다 萬若또和平의 希望이잇는데 和平의條件이 國家의獨立과自由를 阻害하지안흐면 和平을부르지즘은것은 無妨한일이아닌가 그러나 蔣介石及共產黨의 壓迫下에서는「和平을 希望하는者는 漢奸」이라고 하고잇스므로 或은 이가튼 疑問을 提出하는사람이 잇슬지도 모른다 即 設使我等이 이가튼 表示를 한다 하더라도 …

和平 談判에서는 善隣友好、共同防衛、經濟合作等各種問題를 協議하여 그原則에基하여 具體的條件을 適當히 折衝해서 協定하면 全國國民이 그方法을 講究하여 此等 難關을 除하면 …

東亞復興의 責任을 分擔하기바란다 …

(寫眞은汪精衛氏)

秩父宮殿下 九日御入洛

【京都電話同盟】秩父宮殿下께서는 九日午前八時五分 京都驛着 列車로 御入洛御少憩後 同九時 第十六師團司令部에 行次하시와 在京各部隊를 御巡視하시고 同三時師團御發 叡山호텔에入하시엇다

次回의五相會議 十一日定例閣議日에開催?

【東京電話同盟】歐洲情勢對應策의具體的措置에關하여는 八日緊急五相會議에서 六月五日의 關議서決定된 既定方針에 再檢討를加한 陸軍案을組上에노코 온갖角度로부터 檢討를 거듭하여 約五時間동안 討議한結果 右陸軍案에對한 討議를 了하엿는데 더욱愼重히考慮하고자 同日會議에서는 結論을내리지안코 그決定은 次回五相會議로 미루 엇다 이리하야 平沼首相은 今後의取扱에關하여 極히 愼重한態度를가지고 九日朝來官邸에서 熟慮中인데 次回五相會議開催는 各方面의 情勢를보든後 決定할方針으로 解釋된다 그러나 右五相會議의 開催는 諸般事情으로 보아 遷延을 不許하므로 或은 次回定例閣議日인 十一日에開催 最後的結論에 到達하게될것으로 보인다

電力의戰時編成次 總動員法을發動

【東京電話同盟】電氣事業은 電力의 需給調整及 配給의 戰時的 編成을 行하고저 目下電力動員에 着手하기로되어 企劃院에서는 具體案을考究하고잇는데 右案은 企劃院、遞信、商工、農林各省係官의 懇談會에서 一日成案을 어든후 …

五大電力會社를 電力會社에 …

英國側遷延態度에 天津軍當局談發表

租界封鎖强化를示唆

【天津九日發同盟】英國側이 世界情勢가 微妙한틈을타서 自國의立場을 有利하게展開하려고 故意로 東京會談遷延策을 取하고잇슴에 對하여 現地當局은 多大한不滿을 품고 英國側態度를 監視하고잇다 九日午後零時半 在天津軍當局은 英國側의 態度에關한 現地當局의 猛省을 促한바잇섯다

在天津軍當局談

英國이 東京과 重慶을 저울에달아 情勢如何에따라서 形便조흔便으로 가려고 便宜政策을 取하고잇슴은 原則協定締結後 今日까지의 經過로보아 明白한바잇다 그리고 法幣問題、現銀問題에關하여는 在留十日以上을 浪費하고도 아직回訓을受치안코 故意로東京交涉進捗을 阻害하고잇다 本問題에 對하여 米國獨自의立場을取할수잇고 國際大官의 通하는 省의 俗稱(?)는 英國方針에 追隨하고 잇고 佛國도 게둥세(外務省)를 有利하게 展開하려고 故意로 引延할 必要도 업다 經濟問題、治安警察問題에서 分離하려는 當初의 主張을 撤回하고 그동안 英佛蘇 同盟의 締結을 急히하여 歐洲情勢에 가르지 一方 重慶의 態度를 노치는 問題의 危機를 되어 東亞問題를 處理하려는 歐洲의 保健의 大英帝國 …

西尾教育總監 陸相과意見交換

【東京電話同盟】西尾教育總監은 九日陸軍省에 出頭하여 板垣陸相과 會見 新情勢에 對한 陸軍의 態度에 關하여 意見을 交換하고 重要協議를 한 後 午後二時半 辭去하엿다

張鼓峯事件一周年

十日은 日蘇關係의 歷史에 意義 기픈 張鼓峰事件의 記念日이다 이記念日에 當하여 中村朝鮮軍司令官과 波田第十九師團長과 南總督은 各其 다음과가튼 重要한 談話를 發表하엿다 그래서 一般에게 이事件에 對한 認識을 새롭게하게하엿다

旺盛한精神力으로 新建設에邁進하라

中村朝鮮軍司令官談

張鼓峰事件이 我戰史에 比類없는 諸特徵을 남기고 皇軍의 儼然한 制勝에 終結하지 벌써 이에 一周年을 맛게되엇다 돌아보건대 同事件에 잇서서 皇軍將兵의 勇戰의 자취를생각하며 半島官民이 보인 미덥서잇는 銃後의 健全을 回想할때 感激이 용소슴치는것을 禁할수업다 大抵本事件이 蘇聯側의 如何한 意圖로 惹起되엇섯든지는 當時 問題外로하고라도 滿洲國의 國境을 侵犯하여 不遜하게 某地區를 陣地를 構築하는等의 所爲는 斷然코 默過할수업는것이다 게다가 國境朝鮮內를 砲擊하여 無辜한 住民을 殺傷하고 家屋을 破壞하는 暴擧를 敢行함에 이르러서는 實로 神人이 함께 許할수업는바로서 我軍이 斷乎 膺懲의鐵鎚를 加하여 그를驅逐하고 그野望을 粉碎한것은 참말로 當然한 處事라할것이다

그러나 本來부터 我方은 國境防衛以外、아무런 意圖가 잇슴이 아니요 敵을 境外로 擊攘한以後는 遂히 專守防禦의 域을 넘은 일이 업다

本事件의 戰鬪에 잇서서 敵은 有利한 地勢를 占하여 衆多한 兵力과 優勢한 機械化部隊와 空軍으로서 間斷업시 强襲、猛攻하여 오는데 對하여 我方은 困難한 條件下에 僅少한兵力으로서 飛行機、戰車를 使用하미 업시 그러면서도 이를 痛烈히 擊破하여 드디어 그攻擊을 斷念케하고 我方의 重責을 遺憾업시 遂行한것으로서 本事件에依하여 어든

一、我將兵의 旺盛한精神力은 敵의 機械力을 完全히 制御하엿다

二、我方의 大方針은 一兵에 이르기까지 徹底하여 皇軍軍紀의 至嚴이 實證되엇다

三、『蘇聯赤軍은 두려울것업다』라는 確信을 어든것等

貴한 實績은 기리 靑史上에 記錄될것인同時에 本事件에 殉한 護國英靈에 對하여 衷心으로부터의 崇敬哀悼의 精誠을 바치며 삼가 그 冥福을 祈禱하는바이다 그리고 殉難烈士의 遺家族에 對하여서는 深甚한 感謝와 敬意를 表하고 家門將來의 多幸을 祈願하여 마지안는다 또한 事件을 위하여 不幸傷痍를 바고 疾病에 걸린 將兵에 對하여서는 衷心同情하여 마지안흐며 참으로 加餐恢復하기를 비는바이다

또事件에 當하여 半島官民一同이 時局을 기피 認識하고 一致團結行動의 本質을 發揮하고 銃後의 完璧을 充分히 한 努力에 對하여 敬意와 感謝를 表하고 십다

事件一周年에 當하여 往時를 回顧하여 現下의 重大한 情勢에 비추어 我將兵이 張鼓峰에서 發揮한것과 가치 旺盛한 精神力을 가지고 서로 서로 協心戮力하여 皇國日本의 聖業、新東亞建設에 向하여 더욱 힘차게 邁進할것을 盟誓하는바이다

事態를再認識하라

南朝鮮總督談

昨夏張鼓峰事件이 發生한後 벌써 一周年記念日을 마지하게되엇다 當時我朝鮮軍이 儼乎하게膺懲으로써 蘇聯赤軍의 意圖를 挫折시키고 皇軍의 威名을 中外에 宣揚한 것은 半島官民으로서 感激에 不堪하는바이다 이제 그記念日을 當하여 本事件陣歿勇士의 英靈에 敬仰의 誠을 捧하는 同時에 今後에 對한 覺悟를 새롭게 하는것은 그 意義가 深大하다고 안할수업다 이제 滿蒙國境에 잇서서는 第二의 張鼓峰事件이라고 할수잇는 日滿軍對外蒙蘇聯軍의 衝突이 五月以來 反復되어 蘇聯의 野心은 實로 헤아리기 어려운바가잇다 吾人은 銃後一如의 觀念下에 本事件의 變化를 嚴視하고 이事件이 언제어떠한 地點으로 擴大하여 오더라도 斷乎그 事態에 即應할 準備를 堅持하여야 될 다 國內官民은 모두 事態認識에 慎重하기를 바라는바이다

戰歿英靈에感謝

波田第十九師團長談

昨夏突然히 豆滿江岸에서 일어난 張鼓峰事件은 다만 이것을 地域的 또 時間的으로 본다면 目下 我國의 直面하여잇는 廣東時局의 一小局面에 不過한것 같은 認識不足、또는 健忘人들의 皆無를 言할수업는 것을 遺憾으로 생각하는 바이나 그러나 그起因이 暴『蘇』 多年의 野望에서 생긴것 이라하나 그들이 그時機를 가려서 對支作戰의 最重要時機를 擇하여 內外의耳目을 聳動시킨것은 아직도 世人의記憶에 새로운바 이다 그러데 忠勇無比、訓練精到 한我將兵은 寡兵으로써 遺憾업시衆敵을 擊破하고 … 侵犯하지안토록 … 지안는 我國策에 順應하여 堅忍持久完全히 我境域을 確保하여서 國境師團인 責務를完遂하여 日本의委任을 世界에 顯現하엿 … 이로말미아마 皇軍의 眞價와正義 … 『蘇』東部國境에對한 … 를挫折시키고 … 의攻略과가튼 … 作戰의遂行에 … 今日의戰果 … 事件一周年의記念日 … 成果의偉大함을 … 시킨것等으로 … 國民은 모두 … 仰과그冥福을비는 同時에 … 에對하여서는 感謝와 前途의益 …

張鼓峯事件有功者

警察官功勞記章下附에關해 三橋警務局長談

昨夏勃發한 蘇聯의 挑戰에 依하여 惹起된 張鼓峰事件에 際하여 國境地帶警備에任한 警察官은 猛烈한 彈雨下에 敢然挺身하여 敵의 攻擊을 防禦하여 或은 民衆의 避難救護에 또는 事變直後의 民心安定에 盡力하고 更히 未曾有의 水害에 際하여 罹災民救護、被害部落復興에 拔群의 功勞를 거둔 左記四名에 對하여 警察官功勞記章을 下附하게된것은 참으로 欣快且同慶에不堪하는바이다 朝鮮國境은 從來 匪賊의 害를바더온일이잇스나 一國의正規兵力으로써 惹起된 것은 始政以來 張鼓峰事件으로써 嚆矢로하는바로 朝鮮統治史上 特筆할 重大事件이라하여도 過言이아니다 이가튼 暴戾不遜한 蘇聯의 野望에 對하여 新半島國土防衛의 任務 …

… 警察最高의 榮譽인 警察官功勞記章을 授與하고 또 이에 다음가는 … 行賞이 잇슨것은 참으로 感激하여 마지안는바로서 … 警察官吏의 … 使命達成에 邁進하기를 懇切히 希望하는바이다

功勞記章授與者

▲咸鏡北道警察部勤務(元慶興警察署長)咸鏡北道警部 片山猪四郎 ▲咸鏡北道巡査 後藤鉦三 ▲咸鏡北道慶興警察署長(元西水羅警察署長)咸鏡北道警部 古賀守男 ▲咸鏡北道西水羅警察署勤務 咸鏡北道巡査 廣兼茂義

感狀授與者

▲咸鏡北道慶興警察署勤務 咸鏡北道警部補 鐘主正平 ▲咸鏡北道警察部勤務 咸鏡北道警部補 三木秋太郎 ▲咸鏡北道羅南警察署勤務 咸鏡北道警部補 高畠駒 ▲咸鏡北道慶興警察署勤務 咸鏡北道巡査 鄕原義雄 ▲咸鏡北道羅津警察署勤務 咸鏡北道巡査 大下俊作 ▲咸鏡北道西水羅警察署勤務 咸鏡北道巡査 金龍長 ▲咸鏡北道西水羅警察署勤務 咸鏡北道警部補 山根靜雄

할리팍스英外相 스트렁特使와會見

【倫敦八日發同盟】東京에서의日英會談停頓 莫斯科에서의 英佛蘇三國會談開始等 二大問題를압두고 할리팍스外相은 突然休暇를中止하고 九日요크샤로부터倫敦에 歸還하여 오는十一日까지 三日間 外務省과緊密한 連絡을 取하기로되엇다 지난八日午後莫斯科로부터 倫敦에 歸還한스트렁特使와 會見하고 英蘇交涉에 對하여 詳細한 報告를聽取하는 同時에 今後對蘇政策을 協議할것으로 觀測된다 그리고 스트렁特使의 歸國에對하여 官邊에서는 英蘇交涉進行에는 何等 支障이업는 旨를强調하엿다

人事·集會

▲高羲善氏(大阪相互通信社長)九日入京 矣福旅館에投宿

兵站基地朝鮮의現地報告今日休載

市況(九日)

◆群山期米◆ 後場 二 三 四 五 六 七 當限 中限 先限 …
◆各地期米後引◆ 下關 名古 …
◆橫濱生糸後引◆ 當限 一三〇〇 先限 一二三〇〇

글을살리는 書簡쓰는法

學校를 卒業하고도 書簡文을 쓰지못한다고하면 남부끄러운것은업다 實로 서투른 便紙는 自己가 生覺하고잇는것도 相對便에게 充分히 表現치못하고 드디어 重要한 일을 틀리는일이잇다 … 今般 東京市杉並區下高井戶一ノ五一 東京書院에서 發行한 … 『商業文』『慶弔文』『年賀』『祝賀』『照會』『催促』『通知文』『招待文』『男女交際』『就職の手紙』『履歷書の書方』其他 … 定價一圓七十錢인데 五百部限하여 겨우一圓으로 特賣하고잇다 東京書院에 葉書로 申込하면 代金은 着本拂로 急送할것이다

바른 簿記하는法

簿記하는法은 그러케 어려운것이아니다。假令小學卒業한學力으로도 獨學으로 完全히 簿記하는法을알수잇다。今般 東京市杉並區下高井戶一ノ五一 東京書院에서 發賣된 (스구 活用出來る正しい 商業簿記講義)라는 書籍은 그名稱과가치 바른 簿記를 배우는데는 最適의것으로 同書에는 帳簿記入의 心得 現金出納의記入法 商品仕入、賣上元帳、仕分帳、日記帳等의하는法과 決算法、棚卸シ、資產表의作法等 各各類例를示하야 詳細하게 一一히 손을잡고가리키듯써노앗다。그리고 同書는 定價一圓五十錢인것을 特히 今回에限하야 特價一圓으로 頒布하는데 希望者는 葉書로 注文하면 곳送本하며代金은 後拂이라도조타하니 퍽便利하다。

珠算이서틀러서 他人압헤羞恥를當해

某大實業家의 述懷에『입거임(?)을 할수잇게 珠算의初步부터加減乘除諸等數·求積·步合算等詳細한方法을記하여잇스므로 本書에依하야 … 甲種商業學校卒業程度의珠算이면 아무리어려운計算이라도至極히簡單하게 가장빠르고도正確히計上된다고하야 商店會社銀行員으로부터 大歡迎을밧고잇다 同書는定價一圓八十錢인것을 特價一圓으로 前記東京書院에서一般에게 頒布하고잇스니 葉書로申込하면 代金은着本拂로·送本한다。

바른 言語使用法

바른 말을 쓰지못하면 누구든지 곤란을 당한다 … 『바른말의使用法』이란冊을 … 東京書院에서 … 『正しい言葉の使ひ方』는定價一圓五十錢인데 五百部限하야 겨우一圓으로 特賣하고잇다 東京書院에 葉書로 申込하면 代金은着本拂로急送한다。

雄辯의힘

公開된演說의秘訣

辯論의時代와다 公務者의意見을發表하여 大衆의支持를밧고 實業家가 組合이나會社를爲하야 의 必要하게되엇다 … 이번 東京杉並區下高井戶一ノ五一 東京書院에서『雄辯挨拶弔祭演說』이라는 菊半截二百十頁의 指導書가 나왓는데 … 特價一圓으로 目下發賣中이니 希望者는 早速注文하라 同社에서는 代金은 着本拂로發送하여준다

非常時國防色 國民服一般
(靴·肇賞)
セーラー服·學生服
乘馬ズボン·ジャンバー製造卸
其他勞働服·各種洋服
大阪市東區平野町一丁目二十番地
合資會社 若原重商店
(同業商店ニ限リ 各地御照會歡迎)

現代的趣味에最合하고 實行이極히良好한
實用 家庭
ステッキ パイプ 製造卸
大阪市東區北久太郎町四丁目心齋橋筋
(申込次第 型錄進呈) 合名會社 井村友三郎商店
電話船場四一〇二一·振替大阪二二八九〇番

酒毒症으로
苦痛이甚하며 또는身體가衰弱하시는분은 百發百中으로 酒毒을根治시키는 天眞丹 …
大阪市十三東之町二ノ二〇 天眞堂藥房으로 葉書申込하면 詳細說明書를 곳 보내여드립니다

メデカ ポマード
메 데 카
★毛根의··强化榮養料 비타민F의配劑에日本서처음으로成功한驚異의포마ー드!
★本品은··學理에基한 製法에두가지專賣特許權이有함
(藥用 純植物性)
丹頂벨드리이及各레파ー트에有함 金鶴香水株式會社製品

더위를잇는산듯한香氣
金鶴香水
한개에一滴!一滴이!
丹頂化粧品本舖

国産品もこゝまでくればちょっと自慢したくなる舶来品を駆逐した
국산품도 이까지오면 좀 자랑하고싶다 박래품을 구축한
더위에흐리지안코 땀에끈적거리지안코 洗髮容易하며또한 高尚한芳香
파리ー製보다優秀한 國產最高基準品
丹頂チック
純植物性 專賣特許
丹頂へヤートニック發賣元 金鶴香水株式會社製品

鐵馬서서長安에

未開通鉄道沿線風土記

竹嶺재 새에 노코 막혀잇는양쪽文物

京慶線完通하는날에墻壁은무너진다

京慶線 ① 本社特派員 柳興台 文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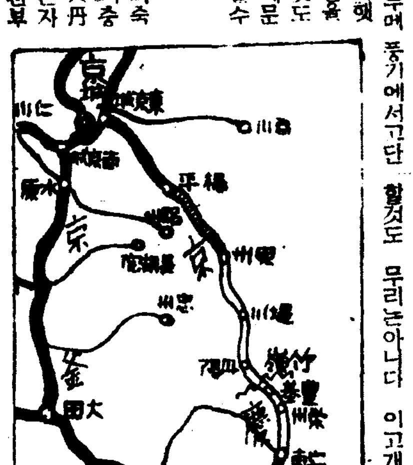
조선의 개화란 옛가락처럼 해마다늘어 나온 철도길과가치 지나와다, 쇠말이 田쇠당나귀다! 무엇을 위해서인지 어떻든 이룹이엇던가 철마(鐵馬)라고 불르던지도 거의반세기에, 기차는 아직도철마의 신비와, 흥분을 가지고 처녀지대를차자 산으로 벌로달려든다 굴이난다 석탄이 난다 새로철마가 달려들것은 곳일수록 더 복적인다 다음에 을 개화는 무엇인가 철마에 압장서서 개통선아의 풍물을 엿보기로하다

경상북도 북쪽끄테소백산맥(小白山脈)을 등지고안즌 조고만 마을 풍기(豊基)의새벽은 닭소리 대신 뒷산에서터지는『다이나마이트』소리가온데 밝엇다.

대구(大邱)에서 경주(慶州)로 가는 철도의중간인 영천(永川)에서 바로북으로 경상북도한복판을뚫고 나가다가 죽령재(竹嶺)로 이름노픈 소백산맥을 넘어서 충청북도동쪽모퉁이와 강원도서쪽모사리를 스치고 경성으로빠저나간삼백오십팔키로의 경경선(京慶線)의 미개통지대를보려고영천으로 들어서서 우보(友保)까지는 기차를타고 그다음부터는 자동차로달리어 산시골중턱에도다시없는 두메 풍기에서고단한몸을쉬일까해던것이다 선잠을 자게되엇다는것도 남이흥하는일때문이엇다면 참을수도잇다

◇

오전일곱시『죽령재』를 넘어충청북도 단양(丹陽)으로 가려는자동차는 정각전부터붐시씨근대고잇다 죽령의노피가 떨려 보앗더니 국다란 농포고 의적상을입고 부지런히 지점봉치를 세고잇는 중늘그니가 힐끗



우편에 기록처럼 소사잇는봉으로 죽령재보다 갑절이나 놉다는 국망봉(國望峰)과 두솔봉(兜率峰)의 위편이 보일뿐이랴더니 구름은 죽령재 수역까지 더퍼여 얼마나 머노픈지를엿수가업섯다 다만 까마케 노피보이는 산속으로 한줄기곤는길이 비치저잇기에『고든길이로군』하고 혼지말로 중얼거렷더니『천만에요 고개 이쪽길만도 여든일곱번이나 꼬부라진답니다 산길로 접어들면 차가 고든길이리고는 가보지를못하지오』하며 얼골운전수가 대꾸를한다 ◎운전수가 이만치 길에 익숙하엿스면 위선 안심하고넘을수잇겟거니하고 마음을노으려는 이순간 갈때어시 경정이 표정을하엿을 내얼골을 보든사람이나 업는가하여 차안을한번 휘둘러 보앗더니 굿처다보고 웃는다 보아한즉갈데업는 중석(鑿石)쟁이다『다이나마이트』를 터트려서 간밤에 큰종석망이 여덟곳이나잇 선잠을자게 한것도 이패들이로구나하고, 생각하니 한것패실하기도햇다 허나 여기가중선소산 못찬것을 타박할것도 업다

◇

풍기서 한 이십분가량 가면 수철(水鐵)이라는 곳을지나게되는데 떼떼로 거룻거룻한 틈이 용차구니를 정북어우더시피하엿고 얼려서수십명 인부들이 틈구루마를 밀고 개아미 구멍안한데로쏠려들어 하는것이 보인다 여기가경경선 최대난공사의 고비인죽령『턴넬』을 뚫는 곳이다 지난칠월중순 철도국장공동(工藤)씨가 마지막 도화선의『스위치』를 눌러 암석으로 둘러싸인 서로통하게된것이 어 『턴넬』은길이가 사천오십미터를 주십러가량되는데 조선에서는 제일긴것이다 기차가 뚫어가기전에 먼저 반으로 한바퀴 휘돌아서 가게되는『루ー프』식으로 뚫어잇는것도 이러턴넬의 한가지 특징이다 이것은 원낙재가 노파서『턴넬』어구가 놉기때문에 올라가는길의 경사를 적게하려는방법으로 그리한것인데 연전만포선(滿浦線)에서도 이방식을 채용하엿고 이번이 둘째번이다『턴넬』속도 풍기편에서반가량은 오룰길이고 그다음은 이쪽처럼 경사는 심하지 안흐나 내려길이 된다 특급『아까즈기』의 속력으로 이굴을 지나려하여도 사오분은 걸리겟스니 경사진곳을 오르내리랴면 이보다 여도 사오분은 걸리겟스니 경사진곳을 오르내리랴면 이보다

◇

는 시간이 더걸릴것이다 그러나 오르내리는 철로선리를 걸어서는 하루종일 걸려서도 두시간 조마조마한 가파른고개를 넘어 오른내리면 어고개를 물파하고 사오분에 오라가릴라는것은 예사람에게는 실로 기적이 아닐수가업다

◇

소백산맥이 충북과 남으로 조선의 장벽이되어 수천년 내려오는동안 이쪽과 저쪽은 사투리까지 달리한점이 만라와 풍속까지 달리한점이 만라 사하나를 사히에두고 우랄보란 한 경상도말씨가 잇나하면 간청도 할씨가잇다 노픈나 충청도 말씨가잇다 노픈나 속령재를 사히에두고 경상도에서 흥변이 드러도 소백산맥을 넘기가 어려워, 라도로 가기를 꺼린다더니 지금와서 보니 비로소 새삼스러운 느낌을 가지게한다 경경선이 다되는날 이가든, 오랜장벽이와르르 문허고튀 지며 양쪽 문물은 조수가튼기세로 될것이다(계속)(철도공사의현장)

幹線에"急行"增發

不急乘客은可及制限!

旅客混雜緩和를主眼으로改正되는列車時刻

十月一日부터全線에實施

철도국에서는 점점느러가는철도여객의 혼잡을덜기위하여 오는시월부터 선선(全線)열차운전의『다이야』를 일제히 개정(改正)하기로 예정하고 얼마전부터 그『다이야』의편성에 준비중이엇는데 요즘에 드디어완성되엇다 그래서오는시월 철도선선파 만주철도선의개정된 다이야와함께동시에 실시하여 내지조선 만주 북지와의교통에 일층속력을내기로되엇다 그개정된내용의 주요한것은 간선철도에열차를 증발하는것인데

◀부산 신경사이에 현재의급행『노조미』와『히까리』이외에 급행열차한번을 더운전하고부산 봉천사이에도 새로급행열차를운전한다

◀경성 대전(大田)사이에 보통열차한번을 더 운전하기로되엇는데 이것은 종래에 밤열시오십오분에 경성으로 부터 부산에 가는 일백사열차에 목포가는 열차를 연결하여서 대전에가서 각기나누어 가게되던것을 폐지하고 경성으로부터 목포행열차를 따로 운전하기로되엇기때문이다 이와가치『다이야』를 개정실시하는 동시에급행열차의 승객은 될수잇는대로 제한할 방침인데 별로 바쁜일도업시 급행렬차에 타려는 사람은 거절하게될터이다 측 를들자면 사냥총을 돌려메고사냥하려가는 사람이나 낙시시대를들고 고기낙그러가는 사람이나 기생을 데리고 오천이나 경치조흔곳으로 호화롭히 놀러다니는 사람따위의 여객은, 대체로 거절하게될 모양이다

就職失敗하고

自殺狂된青年

취직난으로 정신의이상이생겨 두번이나 자살을하려다가 실패한청년을 용산서(龍山署)에서보호중이다 구일아침 용산역구내에서 철도자살을하려고 어릉어롱하는청년하나를 철도국원이발견하고 용산역전파출소에 다려왓는데 어청년이 가지고잇는 수

京城府의새頭痛거리

農村貧民들이모여들어움집짓는통에

土幕整理에또혹이달렷다

任興淳氏自宅에

지난오월이래경성지방법원에서 심리를 계속중이던 임흥순(任興淳)경성부의 선거위반사건은 구일오후 벌금이백원의 언도가잇섯거니와 동씨는 어날오후에 가족과 친지다수의 출영리에 서대문형무소로부터 석방되어 신당정(新堂町)자택으로 돌아갔다

서울은 남부여대하여 처처지와에서 얼아듯기어려운 사투리를 쓰는 허수한 채립채리를 한사람이 부쩍만히 눈에뜨이는것이 그들이며 어느건축장이나토목공사장에도 그들이 업는곳은없다 시괴 되어가는실정으로저개중에는고향에서는 어찌할수도업스므로 가장섭울을 도되는것은팔고 요사이 서울에는 삼남지방한해지 노동자가 모여들기시작하여 그수도 날로 만하기는사실이어 겨우부민의 수목을 꿈 기에 아르렛다 거리에서 천차안

낫는것은 날부여대하여 처처지와함께 서울에와서 이곳저곳에마 응대로 움집을 만드는사람이만하 경성부의 새로운적정신거리가되고잇다 현재 부내에는 약사천호에이만명에달하는 토막민이잇서 신당정(新堂町)을 비롯하여 각처에 산재하여잇고 평상시에도 해마다이백여호에 천명에가까운 토막민이늘어가시가지계획가로공사 로지구획정리사업등 도시미장 사에큰지장이되어잇서 부당국에

서는 그대책으로 가난한사람이 서울로만모여들지안토록 전조선적으로대책을 세우지안흐면 안되겟다고하여 총독부당국에 토막민정리에 관한『근본적대책수립위원회』설치를 요망하고잇든 형편인데 근본책이수립되지도못한지금 비상한 이유로 토막민으로 전락할수밖게업는 노동자가 자기히 모여들기 사작하엿은 간과할수업는 문제라고 하여부당국에서는 위선실정을 상세히 조사하기로 되엇는데 그결과 무슨명안이 잇슬가까 큰 문제이다

今日 東風 天氣 晴

乘客二十名重輕傷

梁山、釜山間定期뻐스墜落慘事

【慶南支社電話】팔일오후 한시이십분쯤 경남지동차 주식회사 송유의 양산(梁山)부산간 정기뻐스 경남제삼천호백륙십오호에 승객이십륙명을 태우고 운전수 이몽진(李夢鎭)(二三)이가조종하여 양산으로부터 부산부내에 오던도중 동래군북면노포리(東萊郡北面老圃里)에 이르럿을지음『헌돌』의고장으로 노괴오시척되는 제방우에서미트 떠러저 승객중 남자세명과 여자네명이 중상을 입고 또 십륙명이 경상을입어 중상자는 곳 부산부내에 호송하여 응급치료를 하고잇는중이다

"夏休의鍛鍊을農村踏査로"

三帝大生의社會實習

일직 평양(平壤)숭실전문(崇實專門)농과를 마치고 구주제국대학(九大)농학부에재학중인 김진세(金振世) 최응상(崔應祥)의양군과 북해도제국대학농학부에 재학중인 최재갑(崔在甲)군의 세학생은 하기휴가를이용하여 심신단련과 조선농촌의 실정을알사하려는목적으로 지난팔월 부산에 상륙한이래 도보와천막생활을하면서 경상남도를 보고 동해안으로들어서서 강원도 해안선으로해서 안변(安邊)으로좇아, 구일 경성에 도착하면서 본사를 방문하엿다 그동안 여행하는동안 최하층의 농민생활은 그대로 가치맛보며 와다는 만큼, 행장은 褪크 하나씩에혜세화생

여저 떠러진곳이 흉밭땅에저즌 풀이고열과 싸우며 도보행각한 자최가 척씨히나타낫다 그들은 그저 편안한 여행아닌 고생을 좋을거게 맛볼까하고 농산, 어촌으로 희돌아왓습니다, 역시 실지로 우리들의 입부는품을 보니 우리들의 농민들의사가 저절로 느껴지는것갓습니다 한밤은 경북지방이 그중 더심햇습니다 아프로도 기회잇는데로 우리는 우리땅의실 림을 실지로 만이보려합니다 그것이 제일조흔 공부가된다고 생각되엿습니다 고 말하엿다(사진은본사내방한 세학생)

"寄附金募集賦役等은大體로中止하라!"

旱魃各道知事에通牒

근래 들물거보는 한발로인하여 농촌의 피해는 상당히심각한바잇지만은 편민행련의 구제와 정신적 구복에의하여 저욕히 칭찬한 상태로써 각각그업에 축실하고잇거니와 총독부에서는 그구제의 만전책을 강구하여 어떠 적절진행중인데 그 구제대책의 하나로서 각도부읍, 면(面), 리(里), 동(洞)으로하여금 급(金)하지안흔 사업과 기부금 모집분을중지 혹은 연기하여술 데업는 민간의 부담을 주리기로 결정한후 이미 각도지사에게 이뜻을 통첩하엿다 그내용의 대개를보면 종독부에서 그구제사업의 하나로서도 국공사, 사방공사, 토지개량공사 중소하천 개수공사, 방조제공사 공공화 는 동 여러가지 공사를 시하여 노동임금을 살포하여이재민을 구제 하기로 되엇스나 수도(水道), 교량(橋梁), 공용건축 기타 재료에 경비가 걸리는 지방청의 여러가지 사업은 아모리 예정계획이라도 될수잇는대로 중지하고 도기부금 모집과 부역기타 인궁에게 적접관계아가는부담은 만부득이한 것이외에는 전부중지하도록 하는것이다 이러고본족 각도시상 수도와의 신설또는 확장공사중 소학교의 신축혹은 증축공사는상 당부분중지 하지안흘수 업는상태에 부착하게되엇스므로 각방면에 밋치는바 영향이 적지안흘것이다

所要鐵材六千噸

企畫院에交涉

任宅對策委員間에意見一致

근래급격적으로 심각하여진초선 각주요도시의 수택난(住宅難)문제는 상상이상으로 대단한조선 일대의 한재는철에 되일려서 얼마전에 급히조직하여된 주택대책 위원회(住宅對策委員會)도아직까지 겨우전번에 간사회를 열지못하고 열엇섯스나 이것도별수확이업시 산회하고 말엇섯다 대체의 주택난문제를 해결할에가장 중요한 관계를 가지고 잇는것은 철재(鐵材)인데 어철재문제가 좀처럼 낙하가되지안키때문에 차일피일 그해결책이 천연되는것이다 총독부에서는 이수택난 문제도그다지 심상히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하여 팔일오전총독부 내무국장실에서 간사중심의 관계과장 임사회과장(林社會課長) 단하자원과장(丹下資源課長) 산지이재과장(山地理財課長) 장형경성부공영부장(長瀬京城府工營部長)등이 모여서 건축재료중 특히 철재공급에 관한협의회를 열고 여러가지로 토의한결과 조선주요도시에 부족한주택 이만사천호를 건축하자면 약 육천돈가량의 철재를 요하게될다 그런데 어것을 공급함에는 총독부의 힘만으로는 도저히불되리라고관측된다 결과 조선주요도시에 ... 그 힘만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므로 기획원(企劃院)에 교섭하여 중앙에서도 상당히인식하여주기를 절실히 바라는 주택문제에 대한 조선의 인정을 고쳐 대교섭하기로 결정하엿다

囹圄의轉向者

防共協會에事業費獻金

형무소에 수감중인 전향사들로부터 감격의헌금이 들어와다 일상팔로서 복역중인 김성도(金成道)외 다섯명은 오는십오일국방공협회기렴 수금에 마지하는 방공협회기념 사업비로써달라고 이십사원을구 서대문서에 기탁하엿다 동기에비하면 출생은 네명이부 럿고 사망은 열여섯이 는셈이다

七月中의仁川人口動態

【仁川】인천부내의 지난칠월중의 인구동태는 어떠한가? 이제부 호적계 창구에나타난 수짜를보면 출생은 일백팔십일명에 사망은 일백육십사명이나된다 어로서 도 열일곱명이나 부럿스며 결혼한 수효는 육십오명에 이혼은 어덟명이라한다 이를전년

健兒團分團發團式

경성동부에 새로 조직된 건아단제이분단에서는 장고봉사건일수년기념일인 십일아침 열시 송인정(崇仁町)동양봉(東望峰) 국기게양대 아래서 발단식을거 행하게되엇다

揮發油、重油統制로

馬車가大進出

【全南支社電話】전시하에 잇서휘 발유(揮發油)중유(重油)등사용절약 통제로인하여 승합자동차는물론화물운송하는회물차동차들 에도 이번을보이고잇스므로 편 게당국에서도 일반운수에는 마차운송을 장려하고잇는데 광주부 내현재마차소유자는 이백칠십명 에 삼백여대의 마차를소유하고 잇스므로 그들을이 활발한 기관 이되도록 하여마차조합 (光州街馬車組合)을 조직하고가 준비위원으로 김용남 백영유 조잔섭 (金容男)白永休崔嶺燮)등 삼씨가선정되어 준비중이라한다

女子庭球의覇者

銀幕生活로轉向

【同盟國리오드八日發】米國女子 庭球界의 第一人者로 斯界의最 高峰인 원불든選手權을 獲得한 아리스·마ー블嬢은 오랜코ー트生 活과 訣別하는同時에 銀幕스타ー 로서 새로운 出發을 할것을聲 明하여 歡米庭球界에 話題를던 지고잇다

日滿華競技에

마라손을追加

日滿華交驩競技大會陸上競技마 라손除外問題에關하여 日本陸聯 에서는 지난五日에 마라손參加 을希望하는旨를 滿洲國側에照 議한바잇섯는데 이에對하여 七 日滿洲國側으로부터 體協을通하 여日本陸聯에 마라손參加承諾의 旨를回答하여왓다

日本蹴球代表選拔

十七名中朝鮮出身은四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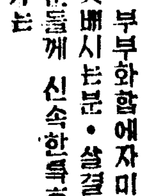
【東京電話同盟】大日本蹴球協會 에서는 來九月一、二、三의 三 日間 新京에서 擧行하는 日滿 華三國交驩競技會派遣의 蹴球代 表에對하여 竹腰鉛衛委員長 司 會下에 銓衡한바 方今合宿中의 日本代表選手候補者 中에서다음 의十七名을 選拔決定하여九日 午後에 發表하엿는데 朝鮮出身 은 四名뿐이다

◀監督 竹腰重丸(京大出)◀選 手 GK 岡本純一(京大出)◀FB、菊池 津田幸男(慶大)▲ 安(東大出) 大山政行(東大) 李裕瑩(延專出咸興)▲HB 高 島良晃(慶應) 関內大(普專) 米岡隆孝(早大) 金容植(普專 出) 笠原隆(慶應)▲FW 金 成玕(延專出) 直木和(東大)川 本泰三(早大出) 二宮洋一(慶 應) 小畑實一(同) 渡邊義浦(早 大) 金喜守(咸興)

竹腰指導委員長談

全日本代表候補者合宿中에選手 選拔豫定이엇음으로 銓衡 이느것다 大體로 六月의 全日 本選手權을 參考로 合宿練習의 成 績을보고 純然히 피어晝밀編成 하엿는데 個人的으로 優秀한新 選手를 網羅하엿다 이들은昨年 合宿에서 가치練習한 選手들만 이므로 컴비네ー슌의點은 念慮 되지안는다 다만內地選手와 全 然 平鮮이가 다른半島選手가多 數히 드러잇스나 이번合宿中에 完成시키려고한다

땅콩



잠지다 죽는것이 아무리편하기로서니 철로 베고 저세상엘 갈까는 의연 간당 지구 올라만간다고。 ○ 몽당 내려야할 비조차 내리지 안는판이니… ○ 구월부터 또 까소링배급을 주린다。 ○ 길거리에는쇼걸,버젹드는『나치스』당원(?)이 더늘것。

曆

◀八月十日(木曜)陰六月二十五日 ◀干支己卯 ◀日出午前五時四十四分 ◀日南中午後零時三十九分 ◀日入午後七時三十三分 ◀晝間十三時五十分 ◀月出午前零時二十八分 ◀滿潮(仁川)午前十一時五十四分 午後 四十五分午後

廣告

蛇の目ミシン

裁縫하기쉬운미싱 사기조흔月賦

帝國ミシン株式會社朝鮮總中央店 京城府本町二丁目八十五番地 (電(本)局七十一番)

더운요새에 여러분이 깨닷는부인병증세

부인병을속히근치하시랴면 먼저 대하증을 곳처야되오니 부인병신약「에스球」로치료하시면 대하증이 곳낫을뿐더러 부인병약에서 처음보는「女性호르몬配合」의효과로써 매력과어여붐을도로차즈시게하여줍니다

몸약하신여러분들께는 요새와같은심한더위가 병세를 더욱악화식혀주며 고통을몹시 늣기시게하여 줄것입니다 그러므로하로바삐 병화근을살펴수시사 팔자나 신세타령으로 쓸아린세월을 보내지마시고 정당한치료법과 치료약으로 속히 근치의깃븜을엇어주시기바랍니다

★

부인병의정당한치료법을 말삼드리기전에 여러분이 요새깨닷는부인병의증세를 간단히말슴드리겟읍니다 즉 남유달이 부룽과헌기증이심하고 경도기가고르지못할뿐만아니라 월경때면 몹시앓게되시며 아래배와 허리가 쓰시고 아푸면서「대하」가 몹시나오시게될것입니다 또한「대하」도 분량이적엇다 많엇다하고 색이댯으며 악취까지나게되실것입니다 그뿐만아니라 어느분은 국부가 붓거나 쓰시고 아푸며 오좀이잣거나 누실때 쓰리고 아푸며 누어도 남은것같은불쾌한기분이잇으신분들이나 부부화합에 자미를모르시거나 아해를못나시는분들 또는 얼굴에잔주름이나 살결이거슬고 눈거미가생기며 무엇이모도나시는분들도 역시 부인병때문에그렁한 증세가 생기는것입니다

★

그러면 속히 부인병을치료하시여서 자기의고통과번민을해결할뿐만아니라 가정의화평을도로찾으실여러분께서는 최근의 醫藥學界에서 공동승인을받고잇는「女性호르몬」으로 부인병근치신약「에스球」는 부인병의병화근인 국부(자궁)에직접치료하는약(국부에아무이상한감이없이봉으시면 족효가잇음)이니지금까지의부인병약중에서 처음으로女性호르몬配合에성공한약인만큼부인병치료에필요한專門藥理作用즉 살균 소독 消炎 防腐 진통 排膿 整經 制泌과白血球의增殖과세포의新生促進 질내의自淨作用의促進등이 호르몬의협력으로써 완전무결히 强力的綜合효과를나타내이는만큼 그렇게 속히 효과가나타나는바입니다

★

치료를시작하신지 그이튼날(약한개를너코주무신그이튼날)부터병세의차도를 적작하실수잇읍니다 또한 깨긋한眞珠빗나는약으로써 국부속에너흐시면 곧녹아서 적격이가 나오는법이없고 티구나 속옷을드럽피든가 약내가나는법이없어 일일히 살을남에게 보이시지않아고도 유명한병원서쓰는약을가정에서 손쉽게 좋은치료효과를엇게되시는약입니다

★

속히 병고에서 버서나실여러분께서는 조곰도 주저마시고 실비의염가로제공하는本劑로치료하여주시사 이時局에 맛당한명랑한新女性이나 어머님이되어주십시요

☆「대하」가심하고 악취나는분·월경통·월경불순한분·국부가쓰리고아푸며 오즘이자즈신분·부부화합에자미를모르시는분·아해를못배시는분·살결이거칠고잔주름이많은분들께 신속한특효가 잇는「에스球」의약가는

十五日分…一圓六十錢 卅二日分…三圓二十錢 五十日分…四圓八十錢

이오며 全道各地의信用잇는有名藥店께서는 책임지고취하고잇읍니다마는 메전된때는 직접本舖나 代理店에주문하여주시면 대금인환으로도 송약해드립니다

★全道有名藥店께急告!

이重大한時局에 맛당한른른한어머니가되시기를바라는本劑가 藥業報國의立場에서全鮮에躍進擴賣를거듭하고잇사오니 火急히 去來하시는 도매점에問議하여주시사 많은聲援과 擴賣를바라는바입니다

本劑의眞効를여러분께證明키위하야 當分間 送料로써三錢切手를젊 부하시와룸 하시면 試用藥一日分과「新女性讀本」을진정합니다

發賣元 東京市牛込區原町三ノ二 吉松仁平商店 振替東京六六六一番

朝鮮總代理店 京城 新井藥房 振替 京城 一六番

貧血 結核 胃腸

治療豫防 强化促進

네오肝精

錠劑

먹기쉬운 肝油劑製 牛肝臟汁配合 發明特許

最低價格 一○○錠 一·○○ 一○○○錠 六·○○ 三○○錠 二·八○

新藥叢讀本 御試用見本及び 「新藥叢讀本」 無代進呈

販賣元 藤澤友吉商店 大阪市東區道修町 東京日本橋區本町 京城府西小門町

NK1815

中部版

埠頭人夫에快消息 賃金引上을協議中
仁川署斡旋으로業者도同意

【仁川】 요즘 모든물까는 오르기만하여 천정을아지못할 동세를계속하고잇스므로 세민계급을 비롯하여 박봉자에게주는 타격이 적지안흔이때에 인천서고등계에서는 부두노동자의 삭전을 이전보다 좀더주어서 그들생활이 보장할수잇도록 할필요가잇다하여 관계업자들에게 말한바 잇섯스므로 지난팔일에는 부내 강업자들이 해운구락부(海運俱樂部)에모여서 협의를하고 인부삭전을 인상시키자는 의론이잇서 대체 의견일치를본모양이다 현재 부두인부들의삭전은 한시간에 십이삼전정도로써 일이만흔때는 하루 이원오십전이나수입되는사람들도 잇스나 일이업슬때는 하루칠팔십전도 못되어 그들생활에 불안을주게되며 보통때는 일원이삼십전정도에 지나지안흠으로 이를인상시켜서 그날그날 생활에 지장이업도록하려고 연구중이라는데 그실현을보리라하여 일반이기대가크다

國產車富平工場 今十月頃着工

【仁川】 대공업지대로서의 압날의기대가 비상히주목을 이끄는부평에야 공장시구에는 순전히 내지대재벌들의 공장으로 진출하게되는데 동경국산자동차회사에서 부평에공장을 세운다함은 이미본보에 수차보도한바 잇거니와 이에 그공장의 건설공사에대해서는 수일전에 회사의건설계주임인대구보(大久保)씨가와서 현장까지다녀갓는데 설계도벌써완성되어 이삼일내로 총독부에 인가신청을 제출하기로되엿다하며 제일기계획으로는 육히 자동차의수리공장으로 쓰기위하여 오천평내외로써 건축을할예정인데 금년시월경에 착공하여 내년봄부터 조업을보리라하여 일반의 기대가자못크다

素新自動車部에서 吾丁線을延長

【素砂】 소사 素新자동차부는 삼사인의손을거쳐 지난봄부터 홍옥(洪鋼玉)씨가 경영하는중인데 종래 소사신천간(素砂新川間) 신천포간(新川浦間) 소오간(素砂吾丁間)을 운전중 승객이 만원으로 차마다 혼잡을 이루다하며 대우가 정거장(...)은 김포가사장에 왕래하는승객이 만타하오 전면까지만운행하게되므로 이지방에서는 오전면까지만운행하게되므로 그지방에서는 불편이 만헛으므로 이 면의를도모하고저 양서면방화리(陽西面傍花里)까지 운전인가신청을하엿다는데 만일인가가되면 소사에서 방화리까지 승차할수잇게될것이라는바 관계주민은 실현되기를 대하고잇다

漫然渡支를不許
仁川署에서嚴團束

【仁川】 사변이후 북지나의 치안이 명랑화함에따라 인천에서 그곳으로가는 도항자의 수효가 자꾸느러 가는중 일확천금의꿈을꾸고 아무런 근거도업시북지방면을 동경하는 사람들이만흐며 또가는사람도만하서 나종에는 치안을방해하고 또는부정업자로 전락되어 송환되는자가요즘 증가하므로 인천서외사계에서는 만연도항자의 취체에한층더 힘쓰고잇다 금년사월경부터는 북지를비롯하여 기타해외도항자가 만히느러서 인천서외사계에서 도항증명을 어더간사람만이 지난칠월중에만 내지인이 일백륙십구명에 조선사람이 이백팔십칠명에 달하고잇다 이외에도 막연한생각으로 가게다고 하나 허가치안흔것이 열몃명이나되므로 그서에서도 금후로는 더한층 취체를엄중히하여 확고한 목적이업스면 절대로도항허가를 하지안흐리라한다

開城에穀物商組
七十餘小商人이組織

【開城】 개성부내에잇는 곡물소매상들은 상공회의소와개성부의 알선으로 지난칠일 오후네시개성경찰서 호지실을 빌어 개성곡물소매상조합(開城穀物小賣商組合)을 조직하엿는데 가입조합원은 칠십칠명이다 그조합의목적은 조합원호상친목과 상거래개선을 도모하여 물자통제하에미까동업을위주로하자는것이라하며 역원은다음과가치 결정하엿다한다

▲組合長金亨根 ▲副組合長[illegible] ▲幹事吳德永 ▲李德明 ▲金文基 ▲金文熙 ▲孫英洙

人夫壓死

【仁川】 폭염에 흙파던 인부가 참사 ― 인천부영정 오십팔번지에둔 중촌조(中村組)인부인 김귀남(金貴男)은 지난팔일 오전열시 사십분경에 부평해면 매축장에서흙을파다가 무더위에 정신이흐리터분해서 산이문허지는줄도모르고 사밋흘자꾸 파내다가우에서 흙이떠러저서 머리를마저 그자리에 쓰러지자 흙이문허저서 전신에 타박상을 입엇는데 가티일하던 사람들이가서 꺼내스나 인사불성이되엇으므로 즉시 부내궁정(宮町)서야입병원(西野入病院)에 다려다가 응급치료를가하엿스나 열한시반경에 드디어 절명되엇다

春川地方서도 牛價暴落

【春川】 근일 춘천우시장의 소(牛)갑시 폭낙되고잇는데 전일업던기현상은 지금것강원도소가 경성방면과 남조선지방에 나가던것이 역현상으로 도리어 강원도시장에 들어오나 판로가업서 우가폭락되고잇는것이다 근래에 드문한발로인하여 남조선지방의 우가는 육할이나 폭락하고 강원도지방에서도 근일 농우방매가늘어가는것도 한원인인데 소를기를라하여도 사료를 구할수업는것등이다

玉蓋貯水池溺死

【開城】 개성당교시장(當橋市場)제십오호에서 화성상회(和成商會)라는 과물상을하는 홍후성(洪厚成)은 지난칠일오후세시경개풍군남면수우리(南面修禹里)풍덕수리조합(豐德水利組合)소관 옥개저수지(玉蓋貯水池)에서 고기를잡으려 동무들과가치나갓다가 술을취하도록마시고 헤엄을하다가 고만실수하여 기픈물속에빠저죽고말앗다한다

培材中學生溺死

【延禧】 시내아현정(阿峴町)사는 윤준식(尹俊植)은 지난칠일정오경 합정정(合井町)부근한강에서 조개잡이를하다가 실수하여 무참히 빠저죽엇는데 그날은시체조차찾지못하여 가족들은밤을새워가며 시체발견에진력을다한바 드디어 팔일오전여덟시경 전기장소에서 시체를 발견하엿다 윤소년은 배재중학교삼학년생으로 그밧에반장으로잇스며 공부도잘하고 품행도단정한 모범생이엇던만큼 일반은한층더가석히 생각하엿다

仁川의傳染病禍
六七月中罹病者一五五名 死亡者도十四名을突破!

【仁川】 인천부내에는 금년여름에들어서 각종전염병환자가 부쩍느러서 지난륙월과 칠월두달동안에발생한 전염병환자의 수효를 인천부위생과의 조사한바에의하면 무려 일백오십오명이나된다 그중에 수위를 점령하는 것이 이질(赤痢)환자로서 팔십구명이나된다 그리고 두달동안에 전염병으로 사망한수효는 열네명이나되는데 이질로죽은자가 일곱 그외는장질부사와 「지프테리」 등속으로인함이 만타고하며 지금도 덕생원(德生院)에입원한 전염병환자수효가 삼십여명으로 대만원이므로 덕생원경비가 예산보다 더들어서 위생과에서는 임시추가예산까지 신청중에잇다고한다

蘇萊面錦李里에서 共勵水利組計畫

【蘇萊】 부천군소래면금리리(富川郡蘇萊面錦李里)에잇는 보가 전부터 잇섯는데 금번에와서는 동하지하고 저수지 안흠만아니라 소작인들이 시흥군과 부천군에잇는관계로 서로멀고잇서금년가치 한발이심한해에는 이앙조차할수업는 현상이다 이를유감으로생각한 그면장 김지형씨는 그곳에 공려수리조합이라도 맨들어 일반농가에 편의를 도아주고저 요사히 면서기를 대동하고 현장조사를 하는중이라는데 일반은 하루속히 실현되기를 갈망한다고한다

具體的對策을討議
代用作獎勵、集團就役斡旋等
京畿道臨時災害對策委員會에서活動開始

이번한재로 경기도당국에서는 도내일반의 구제책을 강구코저 『임시재해대책위원회』를 조직하엿다함은 기보한바어니와 본격적활동을 개시하기로되어 구일오후두시부터 도청제일회의실에서 제일회 위원회를열엇다 회의에는 감자(甘藷)지사를 비롯해서 위원장신곡(神谷)내무부장이하 농무 사회 토목 산림 농지등 각과장이모여서 당면의 구제책에대해서 협의를하엿는데 대용작(代用作)장려, 임공사장에의 집단적취업알선, 임시적인 감면세(減免稅)등 여러가지문제에대해서 의견을 교환하엿다

火災의原因은 모두"不注意"
三浦淸州署長談

【忠北支社發】 청주에서는 금년에들어서 다행히화재가 발생하지아니하엿섯는데 지난오일부터 칠일까지 삼일동안 직기하게도 오회에공하여 화재가발생하엿는데 이에대하여 삼포(三浦)청주서장은 출입기자단에게 다음과가치말하엿다 직기하게도 삼일동안 오회에조사한결과 담배불에서 발화한것이 한건 어린아이의 불작난이한건 남어지세건은 불이잇는재를 버린것이 원인이되엿는데 이것은 모두 부주의로인하여 참변을보게되엿다 장기한발로 모든것은 건조하여잇는 판계로 불이붓기쉬운바 일반가정에서는 특히 불조심을하여 이와가튼 재해를 방지하기에 노력하기를바란다운운

皮帶에감기어 人夫가折脚

지난팔일오전삼시경에 충남온양군온천리(溫陽郡溫泉里)에거주하는 조순재(趙順在)는 동리모정미소에서 노동을하다가 피대에감기어 다리가 부러저 현장에 혼도되엇스므로 부근온양병원에다려다 응급수당을가하는중이나 생명이위독하다고한다

남의집에 더러다본者 家宅侵入罪로取調

팔일오전일시경 청주부서정(...)팔십이번지 정화(鄭和熙)의집안방에서 그집에 묵고잇던 시내모권번기생 김계화(金桂花)가 술잣바람으로 누잠을자고잇던중 웬괴청년한명이 몰래 안방에들어와서 잡지는기생의 호려진꼴을 도적해보다가 집사람에게들켜 본정경찰서에 붓잡혓다 취조한결과 이청년은 충남대전(大田)출생으로 주소부정의 이용선(李容善)으로서 그에게서는 가택침입죄로 엄중문초중이다

畜產事務協議

【忠北支社發】 청주군당국에서는 건조재취주간실시에잇서 철저한 ……

混食普及을奬勵
江原道에서白米節約策으로

【春川】 강원도에서는 국민정신총동원연맹과 제휴하여 혼식장려운동을 ……

全朝鮮蹴球大會 盛況裡에終幕!
本報鐵原支局後援

【鐵原】 본보철원지국주최 전조선축구대회는 철원체육회 후원하에 지난칠일 오전십시부터 철원남(南)소학교운동장에서 회장보원(木原)군수사회로 팔단체의 입장식이 성대히 거행되엇는데 ……

映畫、講演會開催
忠北各地防共日行事決定

防共防諜協會 一周年記念行事

戰歿將士慰靈祭 日光寺에서執行
張鼓峯事件一週年記念으로

滿洲開拓士募集

滿洲開拓民幹部 忠北道서도募集

公定價格無視한 惡德商또摘發

【忠南支社發】 충남도내에는 각지에서 한발을기화로 폭까폭등을예상하고 밀행하는 간상배를 ……

扶餘展覽會開催 九月三十日부터

忠北廢品價格 改正

作料減免、農糧貸付로 爭議를未然防止
忠北道旱害對策講究

【忠北支社發】 충북도내 각지는 미증유의한발로 도내전반적으로 ……

平 澤

第一回全朝鮮蹴球大會

◇時日 八月十二、三兩日

◇場所 平澤그라운드

効果 本位 ビタミン綜合滋養劑 ハリブマルト (하리부말트)

本劑는人體에 絕對必要한 榮養素ビタミンA.B.C.D.G各種을配合하야 그協同作用을 發揮케한綜合的滋養劑이므로小兒婦女의 榮養補給 發育促進·身體의抵抗力强化 其他ビタミン缺乏症等에 特殊한效果가잇슴니다

適用症 榮養障碍·貧血症·小兒發育不良 婦女乳汁不足·腺病質·產前產後·食慾減退·病後恢復期等

包裝 335瓦 1000瓦

HALIBUMAL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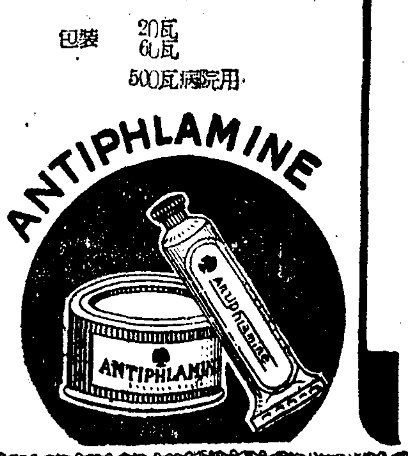
消炎鎭痛巴布劑 アンチフラミン (안치후라민)

本劑는 肺炎을爲始하야 各種炎症과 疼痛性疾患에 卓效가잇습니다。患部에塗布하면有效成分이곳 深部에滲透되야 神經을刺戟하는 老廢毒素를除去하며 血行을잘되게하야 鬱血을푸는 優秀한消炎鎭痛作用을發揮합니다。

肺炎·氣管支炎·神經痛·肩胛痛·腰痛等外에도한婦女의月經痛에 效果가잇서서 下腹部에바르면 疼痛이停止되고 行經을順調롭게합니다。

適應症 肺炎·肋膜炎·로이마치스·扁桃腺炎·氣管支炎·關節炎·神經痛 打撲傷·乳房炎·月經痛·運動後

包裝 20瓦 60瓦 500瓦病院用



UZ-93

男性强力ホルモン劑 オルキモン (오루키몬)

オルキモン은 最新ホルモン學說에基하야 睪丸의全ホルモン과其他諸有效成分을配合精製한 男性ホルモン劑이므로 普通市販에나오는 一時的性刺戟劑와는달러 身體의全器官을補强하는同時에 性機能을旺盛케하는作用이有한 特殊한ホルモン劑입니다。

包裝 (內服) 40カプセル 100〃 (注射) 6管 12〃 50〃

適應症 生殖器障碍·神經衰弱·早漏·性慾減退·遺精 老衰·生殖器發育不全等

(全國有名藥房販賣)

株式會社 柳韓洋行 京城·大連·米國羅府·臺北·天津

ORCHIMON

ライオン齒磨

虫齒豫防에라이온치마가賞用되

殺菌淸掃力이强하고 獨特한作用

으로齒牙와齒齦을强化시키는까닭입니다.

라이온치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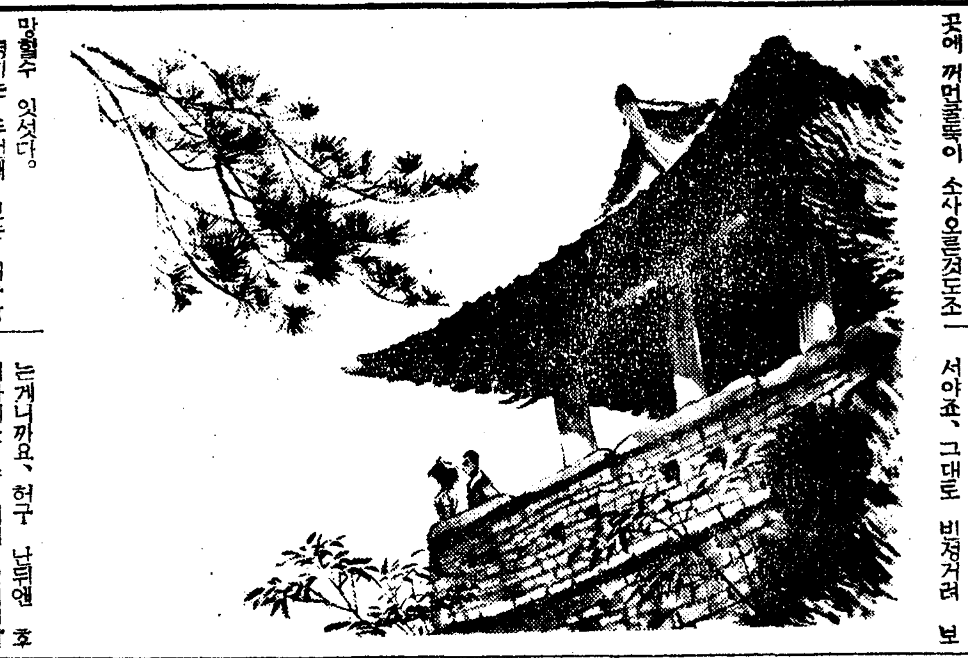
라이온치마本舖 株式會社 小林商店

C―17

長編小說

사랑의水族館【8】

金南天 作 鄭玄雄 畵



白銀灘(二)

을밀대(乙密臺)까지 올려다노코 자동차는 두젊은남녀와 여이고 양덕으로 돌며섯다. 차에서 내려서두사람은 아직도 해가따거운 작일길을 더둥어 을밀대정성미레 올라갓다 누구나 하는 버릇으로 그들은 돌돈자어울긴 난간에기대어 사방을 조망하는것이다.

사동(寺洞)과 송호리(松湖里)의 노호물뚝이 보이는곳으로부터 대동강은 유유히흘러서 멀리 주암산(酒岩山)아페서 모래사장을 씻으며 쪄퍼저서는 능라도(綾羅島)의 푸른섬을 안고 모란봉미트로 길옷이 흘러 들엇다.

그것이 청류벽(淸流壁)을씻츠며 연광정미를 구비처서 멀리 양각도(羊角島)를 향하여 흘러간것이 까마득하게바라다 보인다. 인도교의 한쪽이 벌판으로 떠저서 드노픈『포플라』가 선곳에 꺼먼울뚝이 소사오른것도조망할수 잇섯다.

경히는 두번째 보는 대동강을 이러케 감격을 가지고 다시 내려다 보고 잇다.

아름답다기에는 너무도 웅대하다. 젊은 가슴에 그것은 그대로 거대한 교향악처럼 감격을 이르켜 주는것이다.

강건너 비행장으로 부터는 아름다운 날개를 반뜩이며 비행기가 한대 떠 오른다. 폭음도 경쾌하다. 그것은 을밀대 우를 지나 보통벌을 한바퀴 떠 돌아서 용악산(龍岳山)뒤로 자최를감춘다.

『양덕서 보던 맑든 시내들이 성천서 보던 비류강을 거처서 맥전강을 지내 이러케대동강을 이룬것입니다』

하고 망호도 경히의 감격을공감하며 이러케 설명을 시작한다.

『허기는 대동강의 물줄기는 영원(寧遠)덕천(德川)에서 시작해서 순천(順川)을 지내온것과 맹산(孟山)에서 시작해서 성천을 지낸것이 자파(?波)에서 합하고 다시 양덕과 황해도 곡산(谷山)에서 원천을 이룬것이 저 송오리아페서 합해가지곤 이러케 큰것을 이룬것이지만……』

다소곳하니 듯고 잇던 경히가

『지리선생가트서……』

하고 놀려서 망호는 이내·설명을 중지 햇스나 경히가 가벼게 우스면서 처다보는 표정이 상냥스러워 망호도

『직업의 덕분입니다』

하고 마주 우서보엿다.

그들은 을밀대의 놉다란 사다리를 내려서 청무문(玄武門)쪽을 향하여 걷는다. 그들이 저서 서늘하다.

『조치 못한 습관(習慣)이올시다 엄지만, 공연히 한번씩 빈정거려 보고 싶거나 비꼬아 보고싶어퍼서 큰일이여요』

하고 경히는 제의 버릇을 변명하듯 한다.

(그럼 송현도와의 새에 주고밧고 하던것도 그러한 버릇에 지내지 안는것이엇든가?)

하는 의문이 생겻스나 망호는 그저,

『그건 이선생께서 정신이 건강하시다는 표적입니다』

하고만 대답하엿다.

『어째서요?』

하고 경히는 나무그늘에 오뚝 선채 망호를 바라본다.

『건강한 정신이 추잡한 세태가운데 살때엔 언제나 독설(毒舌)을 송기니까요』

『제의 버릇은 어데 독설이나 역설(逆說)의 재격인들잇서아죠. 그대로 빈정거려 보지 안하 거정이에요』

『거정도 안하시지,』

망호가 아무러케나 던지는말에 경히에겐 몹시 반가웟다.

『거정도 안하시지…』

하고 입속으로 노여 불러보고 그말이 반가웁게 들리는것이 어쩐까닭인지, 그러나 경히도 알지 못하엿다.

그들은 영명사(永明寺)아래지나 부벽루(浮碧樓)우에 서잇다.

푸른 버들이 물에다 발을잠근 능라도가 손에 잡힐듯이아름답다. 물은 초록비츠로 맑게 흐르는데 수도국다리 미테가벼운『뽀-트』가 떠서 논다. 멀리 전등을 바라보든 경히는 홀연듯이,

『우리 뽀-트 타보실까?』

하고 망호에게 물을듯하다.

『너무 늦지 안흘까요?』

『느즈면 어때요, 우리 시원히 좀 타보고 가세요, 저기 버들 꾸기 미트로……』

망호는 대답하지 안코 경히의 얼굴을 바라본다.

『푸른 물우에서……』

이러케 다시 한번 흘려 보는 경히의 표정엔 청춘의 향기가 약동하는것 가탯다. 망호는 징긋이 우서서 그의 가정에 회답하며 경가로 내려왓다.

趣味와娛樂

伊·世界的으로 映畵脚本懸賞募集!

〖賞金十萬『리타』〗 〖期限十月末日까지〗

▼……防共國民의應募를希望

【東京同盟】 민중문화성(民衆文化省)과 국립영화협회(國立映畵協會)의 적극적활동에 의해서 최근에 약진에약진을 거듭하고 잇는『이태리(伊太利)』영화계는 자국영화계의 비약과 자극을도모하기위하여 이번에 십만『리라』(약 삼만원)의 상금을내걸고 널리 세계각국으로부터 걸설적인 내용을가진『씨내리오』를 모집하기로 되엿다한다.

이것은『이태리』의 대표적영화회사(映畵會社)인『로-마』『치네치다』촬영소에서 영화화할것으로 마음기한은 금년시월십오일까지며 심사원은 수상(首相)이세『뭇소리니-』를 비롯하여 각영화회사에서 선발한 사게의 권위있는사람이라는데 응모자격은『파시쓰트』와맛그의 동료이어야한다 하며 일본(日本)과 독일(獨逸)은물론『스페인』『만주국(滿洲國)』등 방공국민(防共國民)의 응모를바란다고한다.

百科辭典

▲새우는 본시 엽은 녹색(綠色)을 하고잇는데 불에 지지면 거죽속에잇던 철분(鐵分)이 노픈 열때문에 붉게 변한다.

金仙草와梁山道

『에헤라 노하라 못노켓네, 능지를 하여도 못노켓네.』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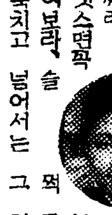
…… …… ……

쿵, 쿵, 와르르, 칭, 칭

(이것은 징소리다!)

양산도란 노래도 조치만, 징소리가 더욱멋이잇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웬만한 여흥장소에는 반드시 나오느니 양산도요, 양산도의 멋진 징소리다.

그러나 하구만흔 양산도에도 하구만흔 징소리에도 우리의 선조(仙草)양이 해야만 맛이 나고 멋이 던다.



들면 양처(良妻)요, 나면 가수(歌手)도 되고, 배우도되는 선조양의 솜은 참께야말로 이 조선노래요, 조선노래 중에서도『양산도』인것이다.

천만에, 거짓말이 아니냐고? 그러나 사실이 니어 짜라. 기회 잇스면 꼭 한번 들어보라, 술 꽉 돌아서 툭치고 넘어서는 그 멋들어진 노래를—. 노래의 매디

雪上布衣美人 ②

申鼎言

그미인이 황건중을 한번처다 본뒤에

『주무시지 안흐시면 편하지안흐셔요?』

『예. 나는 밤을 종종 새보아서 편케지 안습니다마는부인께서 편하실러이지요.』

『나도 하룻밤이나 이틀밤쯤은 관계치 안습니다.』

『그러시다면 다행이요.』

하고 황건중은 그 미인을 도로 보잡아 안젓다.

그리고 황건중은 그 미인의 마음을 낙그려는 수작을 부치기 시작하엿다.

그 미인은 황건중의 수작을 용수절대할만한 아니라 도리어 맞장 채리고 수작하는폼이 매우 능란하여 유명한 오입장이인 황건중으로도 보는이 처음이엇다.

그래서 황건중이 더욱 정신이 황홀해지며 불가튼 욕심이일기시작하여 필경은 그미인과가까이 몸을 대고 안다가

『이게 웬 일일까?』

하는말을 속으로 지껄이고 슬그머니 몸을 움추이어 피하며 그 미인을 다시금바라보앗다.

그것은 다름아니라 황건중이 불가치 치미는 욕심으로 그미인을 이끌새 그미인이 입은 의복이 오뉴월 삼복철기에 엄어도 오히려 싸늘하게 생각이날만한 엷고도 쌍긋한 베옷을입은까닭이엇다.

황건중이 그 미인이 베옷입은것을 보고

『저런 변고가잇슬리잇나 이런 엄동설한에 베것이란말이 웬말이야. 베것을 엷게 입고서도 추어하는 기색이 업는것은 웬일이야. 요물(妖物)이거나, 여우거나, 그러치 안흐면 분명코 귀신이 아니고서야그럴수 업지.』

하고 그 야릇이상한 미인의본색을 살피엇다.

그래서 황건중의 가슴에서 타오르던 불ㅅ결은 삽시간에 사러지고 도리어 어름보다 더 차디차진 마음으로서 그미인을 바라보앗다.

그 미인은 천태 만상의 가진 아양을 함빡 부리며 황건중의 손이 몸에 닿기전에 먼저 황건중을 사로잡오려고 서둘러 대엇다.

황건중은 그 베옷에 대하여 가뜩이나 정님이가 떨어진터에 그 미인이 그와가치 아양을 떠는것이 더럽게 생각이 되어서 더욱 냉냉한 태도로써 그 아양을 바더주지아니하엿다.

그러나 황건중의 태도가 냉냉할수록 그 미인의 아양부리는 태도는 더욱 열렬하여 며친사람과 가탓다.

그래서 황건중과 그 미인은 마치 쪼으려는 황새와 간직히 려는 우렁이와 가튼 정상으로 그밤을 한시각 두시각 괴차간 괴롭게 보내는중 어느듯 닭의 소리가 저저지고 벌써 먼동이 터오르는 부유스럼한 비치 창에 어리게 되엇다.

그 미인은 아양을 부리기에 기진 맥진이 된듯한 기색으로써 참착히 안잣다가 일언반사가 업시 몸을 일어 문밧그로 나가 발이 폭폭 빠지는 눈을 저벅 저벅 밟으며 어디론인지 가는모양이엇다.

황건중이 창문을 반만 열고 그 미인이 그러케 눈길을 밟으나 조금도 추운기색이 업시 행행히 가는것을 보다가 그미인이 보이지 안케 간뒤에 창문을 다드며

『분명 요물이야. 요물이 아니라면 분명 여우야. 만일 여우가 아니면 분명 귀신이야. 그러치 안코 사람일바에야 이러케 눈이 차힌 엄동설한에 여름복색을 차릴리가 잇슬수 잇나. 그야 몹시 가난하면 겨울에도 호궁쟁이만 엽고지내는 여자가 업지 아니할것이지. 우선 우리 전장근처에서도 그럼 여자를 가끔 볼수 잇지안는가? 그러나 그들은 추위를 견디지 못하는 양이 완연히 보이는데 저여편네는 추어하는 기색도 업스니 분명 요물이거나, 여우 이거나 귀신이야.』

하고 그 미인의 본색을 여러가지로 생각하여 보앗다.

그런데 황건중은 그 미인의 본색에대하여는 십분이상 야릇한 의심이 생기나 그황홀할태만은 눈에 어리고 그낭랑한음성만은 귀에 쟁쟁하여 얼른사러지지 아니하엿다.

타는배도陳痛하나 解纜하기에大難産

儒達山 어루만지며 겨우出帆!

⑤ 文·寫·畵……金熊超

살둥실은 이동섭의 엄과 여동섭의 아래충 즉 갑판미테 잇고 또 배의 맨 뒤쪽 여러케 세군데로 나누어 잇다 화물들은 갑판의 빈자리 남어잇는데는 물론이요 선실의지붕에까지 처실들대로 실엇다 수십가마니의 쌀섬 그리고 무엿에 술까지 수십단의 집 대광우리, 교자상, 다무왕동, 또 무엇무엇할것업시 너저분하게 재엇다.

아흡시 정각에 떠난다는 배가 이십분이 지나도록 감감소식이다 하늘이 수정처럼 맑고 바람은 미풍정도인데 해람(解纜)을 유예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어린아이들이 물려들어 향수부채 사라고 졸라대고 늙은이들은 예워싸고 령신핀을 싸게사라고 성화를 하는판인데 배가 비검도(飛禽島)까지만 가느니 안그러라거니 떠들석하는 소리가들린다 그러자마자 뒤미처,

『로빈손! 로빈손오!』

하는것처럼 외치는소리가난다 서출양관에 무고인(西出陽關無故人)으로 나를 차즐사람이 예잇슬리만무라 무심히 여겻는데 금방 또

『로빈손이-로빈손이 어디잇나?』소리가 나면서 갑판위로갈방질팡 헤매는사람이잇다 나는 벌떡일어나 선실박그로나섯다.

『여보여보 누굴찻는거요 로빈손이면 나요』

『에 여보 당신 찻는라고 생애먹엇소』

노-란 작업복을입고 팔뚝기 나온 지지미샤쓰 엽은 자기 나서서 책망을 하는데 보아하니 선원이다. 그리자 막 깍근 맨머리바람으로 회색양복입은사람이 나서서 유창한국어로

『당신이로 빈손상이요?』

하고 얘래위를 훌터본다.

『네 그럿소이다』

『난 목포서원이요 흑산도엔 무얼하려가시요』

대뜸 어려케 뭇고보니 세격한말로 대답이 나오지안는다. 상세히 나의여행의뜻을 설명하자면 일시장 설화가되어 배가 오후에 떠나게될우려가잇서 그저 간단명료하게

『구경하러갑니다.』

『구경하러가요? 명함좀 봅시다』

서원은 내명함을 한참 살펴보고는

『구경뿐이고다른일은업소?』

하길래『업소』하고 명언(明言)을 한즉 즈밋즈밋 하다가 꿈벅하고 배에서 나려버렷다.

그러면 그러치 내본시 전과자(前科者)가 아니며 오후 선량하고 순결무구한 양심이 뭉치한 나의 얼골에 거울속처럼 드러낫슬뿐더러 열언일동에 겸손한 태도 넘처흘럿슴이지라 나에게 불온의 의혹을 가지고 주엽히 더 추궁할 까닭은 업섯슬께다.

때는 정히 구시사십분 남신화은 싸이렌을 귀따갑게 두어번 울리고나서 풍풍 소리를 내며 [illegible] 이러케 수만흔 발동선 사이를 벗어나와 뱃머리를 다도해쪽으로 돌리고는 속력을 노키시작한다. 인제 정말 출범이다.

나는『로빈손』을 부르든선원을 불러세웟다.

『내가 미처 못들어 배를늣게 떠나게한것은 미안하엿이야 그러치만 일개의 하급선원이되어 손님의통을 로빈손이 로빈손이하고 부르느니 그대는 무에 고향이생겨 씨짜를 흘려버렷든가!』

여기까지는 어떠케 점잔히 나왓는데 나도 기실 감정적동물이라 천성인 성습이 슬몃이 솟구처 나오고말앗다.

『그따위 말버릇이 어디잇서언석. 네가 뭐라는게야. 대체 어디서 멋해나 굴러먹던 며석이나 엉?』

우미관 깽까도리패 식으로 떡버티고 서서 곰방 거더부칠드시 주먹한바른팔을 솟구을 굼 문질럿다. 오천이 손이 왈락 왈락 왜소한 그선원은『아파카든』을 예기햇승인지 얼굴에 핏기 하나업시 뒤로 두어걸음 울러선다.

『너 배ㅅ사람 혐한것만 내세웟지 내가 어떤 재고지지 알기나 아니?』

나는 개고기라는데『악센트』를 주어 한번 위압하엿다 그러나 이 선원에게『개고기』란은 서울사투리가 무섭게 이해되엇슬는지? 그는 소리로 변명비슷이 한다 저도 잘못한건은 잇서서 구지 적개심을 가지고 꿋꿋는데까지 해볼 (환·언두를 못갓는) 모양이다 일이분간 침묵후에

『다시는 그따위버릇말어 그편은주인이요 이편은 손님이니까 손님에게공손해야할께아닌가』

나는 아주점잔케 나와다 그러고 자못 천연스런 얼굴로 돌아서서 결혼축사를 마치고 물러나오는 신사처럼 정중하게 뚜벅뚜벅 걸어 중인환시중에 선실로 들어갓다.

내심으로는 꽤 잘된 연극언양 십다 사단이 너무 길게 빼치면 시비가 호러지며 개싸움이 되고 말께다. 그러면 저쪽에는 패가 잇는족 일시선에 여수(麗水)에서 생긴일처럼 나의 수족을 묶거 바다에 내던질지도 모르다 그지경 되면 나는 속절업시 요새 한창인 다도해 민어떼의 밥이 되고 말께 아닌가?

라디오 十日(木)

▲午前六時 (東)라디오體操 ▲同七時 宮城遙拜 ▲同一〇時三〇分 氣象通報 [illegible]메-모 日用時勢 ▲同一一時二〇分 家庭時間『德生活講座』(五)心臟 池盛周 ▲正午 (東)時報 (城)默禱 (張鼓峰事件戰歿者慰靈) ▲午後零時五分吹奏樂(레코-드) ▲同零時三〇分 뉴-스 ▲同四時 뉴-스 職業紹介 ▲同六時三〇分 管絃樂과獨唱 放送管絃團 獨唱 [illegible] 管絃樂과伴奏 京城放送管絃團 編曲과指揮 洪蘭坡 ▲同六時五五分 어린이新聞 ▲同七時 經典解說 ▲同七時三〇分 뉴-스天氣豫報 ▲同八時 맨도린合奏 一、바람의마스크-카(어름의組曲中에서) 二、바다의속삭임 三、沙工의살골 四、船遊 高橋맨도린앙상블 指揮 末岡克馬 ▲同八時五〇分 라디오小說『그림자』-太星完作 崔仙 ▲同九時一〇分 歌謠 一、相思別曲 二、首陽山歌 崔貞姬 大笒 劉東根 杖鼓 朴永根 ▲同九時四〇分(東) 時報 뉴-스 氣象通報 明日曆 翌日順序 ▲同九時五〇分 뉴-스解說 ▲同一〇時地方으로보내는뉴-스 ▲同一〇時 레코-드音樂

第一放送

▲午前六時三〇分 (東)(健康體操)(八) ▲正午 (城)默禱 (張鼓峰事件戰歿者慰靈) ▲午後零時五分 (東)室內樂 ▲同九時一〇分 라디오스케치(淸津)

德林寺本堂

肺患必讀

肺病肋膜患者에警告

사람은 肺患이라하면 바로 그렇듯한 死刑宣告나받은것처럼 놀래며 藥과注射에 [illegible] 치려고합니다. 그들을따라서 無效한藥과 手術을 [illegible] 운 療法을經驗하는 [illegible] 手段方法을쓰써도 病人을낫구는 人이만습니다. 藥장사가아무리 文句를毒舌하지라도 名士大家가아무리 效能證明을할지라도 죽여서는안됩니다. 結核病을 죽이고 肺病을一擧에 全治하는藥과 注射는人類史上아직 地球上의어데서도 發見되고잇지 안습니다.

그릇된 治療法

肺病은 왜낫기어려운가? 그것은 諸氏의 治療方法이 틀림없는까닭입니다 肺病은 藥物萬能의迷夢에서깨고 大自然의품속에 안겨서 精神力을確立하고 病苦를두려하나 내病은반드시 낫는다는 信念이야말로 肺患征服의바른길이라고할것입니다 若草가울르는 곳, 맑은 新鮮한空氣, 滋養食, 陽光 自然의藥草木이 大自然中에 肺病者를救하는 慈愛의손은 펼처잇는것입니다. 肺病은이 自然으로도라가면낫는다 肺病이 안낫는다는 사람은이 大自然의惠澤을이저버린 科學萬能者나西洋文明心醉者입니다.

正當한治療의道

肺患諸氏여당신은 지금어떠케 病膜와자우고잇습니까 大自然의 攝理에背反된잘못된 治療法으로 病勢惡化를 悵嘆하고잇지나안습니까 기침은나지안습니까 熱이 아푸며 咯血은하지안습니까 가슴은안노과서괴롭지안습니까 肺患諸氏여 당신은日光療法을 잘못하고잇지안습니까?……몸에 가까이하고잇습니까……방ㅅ으로 窓을여러노코잇습니까?……自然을 無視하는 藥과器械를使用하고잇지안습니까?……藥의 利用法을 아십니까?……

松永佛骨師著『肺病治療의原理』는同師가病苦十年의 苦痛에서 버서난 體驗으로病苦에게바치는 小冊子로서이야말로 肺患征服의 바른 指針입니다. 이가르킴을 바다 肺病肋膜의 病苦을버서나서 健康을禮讚하는사람이 얼마나만호지모릅니다. 諸氏도어福音을얻고救援의光明에기뻐하는 몸이되시다.

無代進呈

肺病治療의原理

(目錄)

●結核菌과그傳染 ○結核菌의保有者 ●結核菌의天然免疫 ○肺病이되었는가 ●釋迦의金言 ○肺病은반드시낫는다 ●結核菌을죽이는藥이잇는가 ○大自然의품속으로 ●治療의原則 ○信仰에對하야 ●藥의利用方法 ○水療法의方法 ●日光과空氣 ○安靜療法 ●榮養療法에對하야

○喀血의原因과止血法 ●發熱의原因과解熱法 ○鎭咳法과祛痰法 ●盜汗과그療法 ○不眠과安眠法 ●泄瀉와便秘療法 ○脈搏에對하야 ●肺病은全身病이다 ○療養生活者의注意 ●肺病과和漢藥 ○누구나採取할수잇는藥草 ●家庭에常備하는藥草 ○野菜와果物의藥効

—以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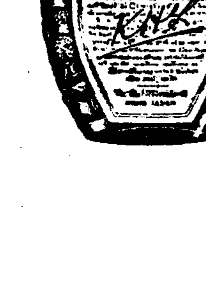
上記內容의『肺病治療의原理』와 藥草療法을公開한『光明のあなた』二冊을 只今곳朝鮮日報에서보앗다 冊보내라고써서 左記로葉書로보내면 肺患退治의弘願에 依하야 無代進呈함.

大阪府布施市 功德山 德林寺

電話布施二四五·振替大阪二三五

著名大病院御採用

盛夏! 惡疾이蔓延된다!!



몸의抵抗力이衰退

되고 疲勞되기쉬운무더운여름철에는 氣溫의關係로 病原菌의跳梁이 旺盛하므로 여러가지惡疾——傳染病이蔓延되는데 그中에서도 腸疾患이第一많읍니다. 不幸히腸疾患에 걸녓을때 一時的鎭痛劑나泄瀉藥을 使用하고治療를잘못하면 生命을빼앗기는경우가적지않음으로 效驗이

徹底한乳酸菌製劑

를服用하야 根本的으로治療하지않으면안됩니다. 乳酸菌이라할지라도 效力을發揮하는것은 그製劑에含有된乳酸菌의生活力에依하야左右되는것인데 本劑『비오훼루민』은 가장生活力과繁殖力이旺盛한短桿狀菌과糖化菌을含有시킨優秀한製品임으로 腸內의腐敗와異常醱酵를防止하며 有害細菌을殺滅하고

腸機能을根本强化

시키며 腸內澱粉及蛋白質을消化시키는等々의卓越한作用을가젓으므로

一、傳染性腸疾患——赤痢、虎列剌(怪疾、虎疫)、腸窒扶斯、바라지부스、腸結核。
一、腸內異常、急性及慢性腸加答兒、泄瀉、常習便秘症、鼓腸症、消化不良。
一、小兒腸加答兒、消化不良、綠便。
一、榮養障碍를이르키는慢性症 卽結核 糖尿病
一、早老症、卽腸及諸血管硬化症、萎縮腎、慢性及慢性腎臟炎、肝硬化症。

等의豫防과治療保健에卓効합니다。

粉末과錠劑·全鮮藥房에잇습

ビオフェルミン

비오훼루민

武田發賣品

發賣元 大阪市道修町 株式會社 武田長兵衛商店 京城出張所 京城府南大門通三丁目一〇六

製造元 神戶市二番町 株式會社 神戶衛生實驗所

39(1)513